

PRESS FREEDOM

18 January 2004

중국 - 한국

국경없는기자단은
일년전 탈북자 취재중 중국당국에 체포된
한국 사진기 석재현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습니다

탄원서는 1월말 프랑스를 방문예정인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됩니다.

RSF 국경없는기자단은 1년전 탈북자 취재중 중국공안에 체포된 석재현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인신매매범취급을 받고 2년형의 수감생활을 하고있다.

국제적인 언론자유 수호기구가 1월 27일, 28일 양일간 프랑스를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 주불 중국대사관 항의 방문 등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은 온라인으로 [HYPERLINK "http://www.rsf.org"](http://www.rsf.org) www.rsf.org.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석기자는 2003년 1월 18일 한국과 일본으로 배로 탈출하려던 탈북자들을 도우려다 체포됐다. 중국은 북한과 탈북자송환협정이 맺어져있는 상태이다.

석기자는 2003년 5월 22일 산둥성 엔타이 법원에 의해 인신매매죄로 2년 형을 받았다. RSF국경없는기자단은 한국정부가 보다 강력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RSF 사무국장 로베르 메나씨의 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모든 외교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석기자의 구명운동에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석기자의 수감사실을 확인해주는 수준이다.”

메나 사무총장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의 구속은 중국내에서의 탈북자관련 외신 활동과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의 누명입니다.”이라고 강조했다.

The New York Times 와 한국의 월간지 Geo에서 활동하던 석기자는 엔타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수감조건은 알려져있지 않다. 현재 담당변호사와 한국정부의 영사만이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의 부인, 가족, 친구와 동료들조차 그를 면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